“종교는 마음을 즐겁게 해야”

해외불교칼럼

배타적 태도와 ‘막무가내’식의 전도는 종교의 본래 사명을 왜곡시키며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진은 종교편향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는 교회에 마련된 투표소.. <현대불교자료사진>

몇 년 전 캐나다를 공식방문한 달라이 라마는 ‘살아 숨쉬는 평화’란 주제로 3만 여명의 대중에게 법문을 펼치며 이렇게 말했다. “나의 적을 파멸시키는 것은 곧 내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새겨볼수록 묘한 뉘앙스가 풍겨나는 얘기다. 그렇다면 적과 서로 옹기종기 친하게 지내자는 얘긴지? 뒤이어 그는 중국에 대해 곰삭은 홍어처럼 톡 쏘는 한 마디를 던졌다. “내가 관대함을 배우는 데 있어 나의 적보다 훌륭한 스승은 없습니다.”

그럼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적을 이젠 아예 스승으로 모시자는 건가 ? 참 이상야릇한 해학이다. 그 말에 담긴 뜻을 헤아리느라 잠시 멈칫하던 군중사이에서 갑자기 터진 봇물처럼 폭소가 터져 나왔다. 그들도 마침내 불교 특유의 역설을 이해한 것이다. 애써 겉모양이나 위엄을 챙기려 하지 않는 달라이 라마는 이처럼 늘 웃음이 넘치며 쓰는 말씨도 아주 쉽다.

이어 토론토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가 답례인사를 하게 됐다. 그러자 각계 인사와과 학생 등 약 2000명의 참석자들은 조용히 그가 입을 떼길 기다렸다. 잠시 머뭇대던 그는 장난꾸러기소년 같은 미소를 띠며 서툰 영어로 더듬더듬 이어갔다. “저, 그 어려운 법률 공부 안 하고도 어, 이렇게 박사 학위를 받다니, 하하. 네, 참 좋군요.” 참석자들은 죄다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마치 신의 대리자처럼 구는 종교지도자의 유형에만 익숙했던 그들에게 달라이 라마는 일종의 파격일 테지만, 이는 곧 붓다세존의 본 모습이다.

서구인들은 불교의 그런 측면을 가장 반기며 친근하게 여긴다. 그래선지 요즘 미국인들도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우스개를 부쩍 만들어 낸다. 그 중 하나다. “내 친구가 모처럼 일요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얼른 살짝 빠져 나오려는데 목사님이 그 친구의 손을 꽉 붙들더니, ‘자, 이젠 형제님도 우리 주님의 군대로 들어오셔야죠.’라고 말했다. 그러자 내 친구가 ‘어? 목사님, 저는 이미 들어간 걸요’라고 대답했다. 목사님이 그를 지그시 눌러보며, ‘그럼 왜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 말고는 형제님의 코빼기도 볼 수가 없나요?’라고 묻자 내 친구가 갑자기 귀엣말로 속삭였다. ‘쉿 ! 목사님, 여태 모르셨나요?’ ‘모르긴 뭘 몰라요?’ ‘쉿, 목사님, 저는 주님 군대의 특수비밀요원이걸랑요.’ ‘그래서요?’ ‘아, 예, 그래서 저는 늘 아무도 안 보이는 데 숨어서만 임무를 수행한답니다, 쉿.’” 그 농땡이 신자가 주님 군대의 탈영병이든 특수비밀요원이든 이 얼마나 상큼하고 재미있는 그림인가? 종교란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고 즐겁게 해주자고 있는 게 아닐까?

언젠가 함께 불경스터디그룹을 하던 르네라는 외국 여기자가 어느 대학교에 프랑스어 강사로 들어온 자기 동창생을 함께 만나자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신도림역에서 부천행 전철로 갈아타려는데 한 아줌마가 날 똑바로 찍어보며 다가왔다. “지옥 불을 면하고 천당 가려면 당장 회개해요!” 이내 구경꾼들에 빙 둘러싸인 내가 낮게 물었다. “아, 예, 근데 뭘 회개하면 좋을까요?” 그 말에 열을 받은 건지 그녀는 이젠 내게 사탄이니 마귀니 막말에 삿대질까지 해댔다. “어머, 천당의 안내도우미치곤 의사전달방식이 거의 지옥 여간수 버전이잖아!” 곁에서 내내 지켜보다 못해 한마디 내뱉긴 르네가 내 두루마기 소매를 끌어당기자, 그녀는 시뻘건 숨을 내뿜으며 날 파랗게 노려봤다.

때마침 들어온 부천행 열차 속으로 떠밀려 들어가며 난 그녀에게 짧은 인사를 건넸다. 열차 안까지 잔뜩 화를 끌고 들어온 르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스님이 그 이상한 여자한테 맨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셨기에 여기까진 안 쫓아온 거죠?” 내가 대답했다. “아줌마, 그 좋은 데로 얼른 먼저 가계세요. 저는 천천히 따라갈 게요.” 르네가 킥킥대는 틈에 진짜 마지막으로 해줬던 말은 나 혼자 중얼댔다. “아줌마 자매님, 시방 저는 천당보다 해우소가 더 급하거든요.” 왜 그리 힘들게들 믿으시나 모르겠다. 본디 곱고 순진한 우리나라의 선남선녀들을 누가 왜 그리 가르치는 걸까?

편역:성휴 스님

참조:TCN, Campus Pranks

“백전백승의 경영비법은 배려심”

월드스타 불심도스타

필 잭슨 ❸

선불교·美원주민 철학 스포츠에 응용

‘중도·상호신뢰·열린 토론의 장’ 강조

미국에 선이 도입된 것은 불교가 알려진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공식 기록상, 선이 미국에 소개된 것은 동학혁명 한 해 전인 1893년으로 당시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종교의회에 참석한 샤쿠쇼엔(釋宗演) 스님이 그 선구자라는 게 보편적 견해다. 지금도 서구에서 흔히 선은 젠(zen), 좌선은 자젠이란 일본말로 통용되며, 선을 통한 깨우침을 일컫는 용어도 일본어로 사토리(悟り)라 발음할만치 일본불교의 기여도가 크다.

뿐만 아니라, 일본불교는 검도, 궁도, 유도, 합기도 등 각종 무술부터 분재, 다도, 서화에 이르기까지 일본 전통문화를 서구인들에게 선전 보급함에 있어 선을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했다. 특히 선은 재미일본인들의 강력한 사회적, 정신적 결속요인이 되어왔고, 일본불교는 서구에 찬란하고 유구한 동양문화를 과시하고 동양인에 대한 재평가를 유도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1950년대 이후 미국 불자가 급증하면서 선 역시 사회 깊숙이 파고들며 문학, 음악, 미술, 영화, 스포츠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끼쳐왔다.

모든 인종, 종교, 과학, 문화, 예술의 용광로라 일컬어지는 미국에선 불교도 여타의 사상, 철학 등과 원활한 융화를 이루며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불교의 특징은 일상 속의 불교(Buddhism in Daily Life), 그리고 생업 속의 선(Zen at Work)으로 대별된다. 즉, 수행과 생업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수행이 일상의 삶과 일에 직결 활용됨을 뜻하는바, 이는 미국인들의 실용성, 독창성, 기업정신과 다시 결합하여 막강한 시너지를 창출해낸다.

거기에 자본주의 대국 특유의 다양한 상업적인 발상마저 더해지는 까닭에 꼭 불자가 아니라도 실리적인 측면을 추구하여 사찰과 선원, 동아리 등을 찾는 이도 많다. 따라서 여러 형태의 선원들은 그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세미나와 영상물을 통한 교육과 도서출판물들도 줄을 잇는다. ‘고등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산계층’이라 분류되는 미국인치고 적어도 한두 번 불교나 선과 접해보지 않은 이가 없다는 게 미국 종교학계의 공통된 견해다.

한때 개신교도였던 필 잭슨의 뛰어난 인간경영 및 용병술 역시 불교의 미국적 응용사고의 결실이다. 그는 선불교와 미국토착원주민들의 철학을 합성하여 스포츠 현장에서 십분 활용했다. 인종갈등 등 팀 내의 이질요소를 극복하고 상호조화를 이룬 팀플레이의 달인인 그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강조한다. ‘매달림을 버리라, 마음을 비우라, 나를 버리라’ 이는 자아를 버림으로써 되레 자아를 이룸과 일맥상통한다. 그가 제시하는 리더의 필수적 자질은 이렇다. “첫째, 리더는 자신의 임의적인 판단, 선입견, 편견이 없이 팀 구성원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라.” 이는 어느 편에도 치우침이 없음을 뜻하며,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Middle Path)가 그것이다. “둘째, 제대로 된 팀을 구성하고 상호신뢰감을 구축하고자 하는 리더는 우선 상호친근감부터 조성하라. 셋째, 리더는 팀 구성원 각자 자신의 감정과 견해를 토로할 장을 늘 열어두라.” 즉, 불교에서 말하는 원융(圓融)이 그의 분명한 지론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팀 내에 너와 나가 따로 없는 어우름을 갖추는 한, 선수 개개인에 대한 동기부여는 따로 필요치 않다. 굳이 장황한 훈시로써 선수들에게 동기부여하려 말라. 그들을 드래프트 했을 때 동기는 이미 부여된 것이다. 우리 팀을 찾아온 친구들은 하나같이 제 발로 찾아왔고 이미 그만치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이다. 승부욕이란 아무도 가르칠 수 없으며, 각자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다.”

절로 박수가 쳐지는 멋진 말이다. 그는 NBA 프로농구 코트라는 대강당에서 세계적인 CEO들에게 ‘불교적 리더십’에 대해 한 수를 가르치고 있다. “두루 배려하라. 늘 남을 보살피고 보듬어주는 진정한 배려(Care & Share), 그것이 곧 백전백승의 경영비법이다.”

성휴 스님

ABC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I might be a famous master,
but not a dead one yet.

소승이 명망이 높은지 모르나 사망은 안해본 터라.

The Emperor asked the famous master, “What happens to a man of enlightenment like you after death?” “Well, how should I know?” replied the master. “I am asking it because you are a very famous master,” sneered the Emperor. “Your Majesty,” smiled the master, “I might be a famous master, but not a dead one yet.”

황제가 널리 알려진 선사에게 물었다. “선사처럼 큰 깨우침을 얻은 이들은 죽은 다음에 어이 되는 것이오?” “글쎄요, 소승이 그것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선사가 그리 대답하자 황제가 슬슬 이죽거렸다. “그대는 명망이 높은 선사라서 짐이 묻는 게 아니겠소?” 선사가 미소를 지었다. “폐하, 소승이 명망이 높은지는 모르오나 사망은 아직 아니해본 터라.”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다우존스, 불·힌두교 관련 상장주식 평가

인도에 다르마 투자법인 설립

세계적인 산업평가기구인 다우존스는 3월 7일부터 다르마, 즉 불법을 신봉하는 불교 및 힌두교 관련 상장주식 평가에 착수했다.

‘다우존스 다르마 지수’는 최초로 세계적인 3400여 다르마 유관 우량기업체의 지수를 미국, 영국, 일본, 인도에 도입하며 이를 위해 인도의 종교관련 개인사업체와 다르마 투자 법인을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다우존스는 1999년 이슬람주식시장지수를 시작으로 종교관련 지수를 개설했으나 현재까지 기독교에 관련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출처:NBC, BCTV

참선호흡으로 흙더미서 구사일생

중국 저장성 닝보 시에서 3월 7일 한 건설업자가 약 2m의 흙더미에 생매장됐으나 참선호흡으로 살아났다. 금년 52세의 왕지엔신씨는 평소 꾸준히 참선을 수행해온 불자로 매몰사고 직후부터 참선호흡을 통해 두 시간을 버틴 끝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담당의사는 이런 경우 보통 5분 안에 사망한다며 그의 기적적인 기사회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출처:BCTV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 54염주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는 영원 불멸의 평생염주

▷특별선물:27주 법륜염주와 손목합장주

평생염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부처님 보석인 천연백수정 54법륜염주를 수입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불자라면 누구나 꼭 갖고 싶은 인도전설의 염주이기 때문이다. 염주알을 108주로 한것은 108번뇌의 끊음을 뜻하는 것이고 염주를 2등분씩 줄여 54주 염주 27주 염주, 단주와 합장주로 만든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만 있어도 행운과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뜻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대 인도 상인과 아라비아상인및 지도층 인사들의 전통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것을 지금도 볼수 있다. 원대한

부처님 존상인 법륜을 매듭으로 넣어

계획을 갖고 계신분, 중대한 문제 해결을 앞둔분, 소중한 인연을 기다리는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분등은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면 소원이 이루워진다는 전설의 염주다. 수입후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천연백수정 54주 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할 분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게 불심사에서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천연백수정 54주염주와 가족친지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27주 법륜염주와 손목합장주를 수입기념 특별선물로 보시하고 있다. 염주알 크기11mm 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무자년 소원 성취 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소원 성취의 선물

세상사는동안 근심과 고통없이 부와 명예를 누리며 평생을 사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그러나 부자로 평생을 사는 사람은 많다. 세상중생중에는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아 갖가지 고통을 당하며 사는 미련한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금강의 지혜를 얻어 부와 명예를 누리며 큰 공덕을 쌓기를 바라고 계신다.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오만과 의심으로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을 중요시한다. 또한 물연법도 중요하다. 환자에게 약도 맞는약이 있듯이 물건하나도 연이 되는 물건이 있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신묘장구 大다라니 지갑에는 대비신력의 부처님법구인 신통한 종자가 들어 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 대복을 받으며 물질로 인한 근심과 고통을 소멸하게 만든 영험의 지갑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한지 5년간 숫한 영험으로 화제를 낳고 있는 신묘장구 大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가 지갑내부 상단에 들어 있고 막혔던 모든 일들이 풀리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내부에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게하는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천연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 또는 선물 받는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간 축원불공을 올려드린다. 전화로 신청하면 지갑은 택배로 받아 사용하고 축원불공은 신청다음날 새벽부터 올려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 95,000원 문의(02)741-4488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친 비방!

안전운행의 선물!
평생보호의 선물!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생명을 보호하는 영험!

자동차 사고예방 삼고금강저 출시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세상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가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비방의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달리는 자동차 사고는 자의든 타의든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와 죽지 않으면 평생고통속에 살아야하는 액란이다. 부처님 제1위 법구인 삼고금강저는 세상사는 동안 생명을 보호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악연을 만나지 않게 하며, 법적인 관재수를 소멸하고 금강의 지혜를 얻어 안전운행하게 하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부처님 가피로 생명보호와 안전운행의 축원불공까지 마친 자동차용 금강저는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순금금니로 제작해 운전석위에 걸면 차안이 품위가 있고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불심사에서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38,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